

간호대학생의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문화적 인식 영향요인

김경숙 · 유 미

남서울대학교 간호학과

The Influencing Factors associated Cultural Awareness of Immigrants for Marriage, Foreign Workers in Korean Nursing Students

Kim, Kyung Sook · Yu, Mi

Department of Nursing, Namseoul University, Cheonan,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influencing factors associated to students nurses' cultural awareness toward immigrants for marriage and foreign workers.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107 nursing students in C city in Chungnam province. The data were collected with structured questionnair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ANOVA, correlation analysi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Results:** The mean score of cultural awareness was 3.67. The degree of cultural awareness was different according to educational experience related multicultural and age. The variables predicting cultural awareness were social distance of foreign workers, emotions of immigrants for marriage and age. These factors accounted for 26% of the variance of cultural awareness in nursing students. **Conclusion:** The results indicate education related multicultural should be provided to nursing students to reduce the social distance between students and foreign workers and enhance positive emotions for immigrants.

Key Words: Culture, Awareness, Nursing, Students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유엔 보고서에 의하면 국제적 인구 이동 현상은 2005년 이후 10% 이상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United Nation, 2009). 우리나라의 경우도 세계화 추세에 따라 한국 내 거주 및 체류 외국인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주민 가운데 국내 결혼이민자의 경우 2007년 110,362명에서 2010년 136,556명으로(Ministry of Justice, 2011), 외국인 근로자도

2007년 259,805명이던 것이 2010년에는 558,538명으로 증가하여 이주민 중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가 60%정도를 차지할 정도이다. 그 외 유학생,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한 국내 체류 외국인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2010). 외국인 이주민의 증가에 따라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 환자수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건강문제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결혼이민자들은 대부분 건강상태가 양호한 편이나 11.8%가 질병을 가지고 있고 두통, 생리통, 요통 등의 신체 불편감을 호소하였다(Park, Bae, Kim, & Yoon, 2008). 그런데 2009년도

주요어: 문화적 인식, 간호대학생

Corresponding author: Yu, Mi

Department of Nursing, Namseoul University, 91 Daehak-ro, Seonghwan-eup, Sebuk-gu, Cheonan 330-707, Korea.
Tel: +82-41-580-2717, Fax: +82-41-580-2931, E-mail: yumichonsa@nsu.ac.kr

투고일: 2012년 6월 29일 / 수정일: 2012년 10월 17일 / 게재확정일: 2012년 10월 20일

다문화가족 실태조사(Kim et al., 2010)에 의하면, 외국인의 10.6%는 중도에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들 또한 근골격계질환의 건강문제뿐만 아니라 한국어 능력이 미숙하여(Jung et al., 2008) 병원 진료 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불충분한 진료시간, 병원이용절차의 복잡함, 동료집단의 지지부족, 의료인의 차별 등을 경험하고 있다. 또 의료기관 이용 시 가장 힘든 점은 교통 불편이나 의사소통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았다(Kim et al., 2010).

다문화권 대상자가 의료서비스 이용 시 경험하는 편견과 차별 및 장애요인들은 다문화 사회에서의 효율적 건강관리를 위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서로 다른 문화 간에 발생하는 문제의 의료서비스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인 문화적 인식이나 민감성, 역량 등의 함양이 필요한 것으로 이슈화되고 있다(Donnelly, 2000).

문화적 인식과 민감성, 역량은 그 정의가 계속 진화되고 있는 개념이며 같은 구성개념으로 상호 대체하여 사용되기도 하지만 그 정의들은 명쾌한 진술이라기보다 함축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 대체적으로 문화적 인식과 문화적 민감성은 문화적 역량을 구성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Rew, Becker, Cookston, Khosropours, Martinez, 2003).

간호사들은 가족 다양성에 대한 수용도가 높고 문화적 역량이 높을 경우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이 개방적인데(Kim, Lee, & Kim, 2011), 이러한 문화적 역량(cultural competence)은 우선 문화적 인식(cultural awareness)의 개선과 증진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다. 문화적 인식은 문화적 역량의 주 요소로(Rew et al., 2003)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한 올바른 문화인식과 더불어 다른 사람과 인종, 지역의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이며,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인 인식은 문화적 역량을 증진시킨다(Koh & Rhee, 2011). 또한, 문화적 인식에 대한 사전 훈련이나 높은 교육적 참여는 문화적 역량과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Schim, Doorenbos, & Borse, 2006), 국내 연구에서도 다문화 체험 활동이 다문화와 인종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확인하였고(Kim, Lee, Kim, Choi, & Kweon, 2010), 북미에서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 등 3개국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의사소통과 언어적 기술이 강화되고 다문화적 지식이 성장하였음을 진술하고 있다(Kuehn et al., 2011). 이는 문화적 이해도가 높으면 문화적 역량 수준이 높아지며, 체험 경험적 학습은 공감 능력을 높이고 공감은 매개적 변인으로서

문화적 역량 수준을 증진시킨다(Min & Lee, 2009)는 것을 함의한다.

대학생들은 이주민의 증가가 우리사회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주민에 대한 편견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Kim, 2010), 한국인은 중국이나 베트남에 비해 다인종 사회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한다(Seo, 2010). 따라서 한국 사회는 다인종, 다문화에 대한 편견 극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다문화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편견은 특정 집단 및 그 집단에 속한 사람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어떤 집단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과 부정적인 '감정'이며 특정 이주민이나 외국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과 감정에 대한 변화를 통하여 인종에 대한 인식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다문화적 가치에는 고정관념, 감정, 사회적 거리감이 관련이 있으며 인종별로 차이가 있었다(Lee, Kim, & Han, 2012). 사회적 거리감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회집단에 대해 갖고 있는 편견의 정도나 주관적인 느낌으로 의료서비스 영역에서 특정대상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갖게 되면 환자와의 관계형성이 위축되어 간호의 질에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외국인 이주민들의 건강문제로 인한 의료서비스 증가는 이들의 건강문제를 해결하는데 주역이 될 간호대학생들에게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외국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다문화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할 필요성을 증진시킨다. 즉, 다문화적 인식을 통해 다문화에 대한 수용과 사회적 거리감을 감소시켜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적 요구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 의료계의 다문화 사회에 대한 관심이나 노력은 미흡한 실정이다. 다문화 관련 간호학 논문은 2001년 이후 13편 정도이며 이 논문들은 간호사 대상이라기보다 결혼이민자, 새터민 등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간호조직이나 간호사, 간호학 전공자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Jung et al., 2008). 최근에 간호사의 문화적 역량이나(Park, 2011), 다문화 가정 인식에 관한 연구(Kim, Lee, & Kim, 2011) 등이 수행되고 있어 향후 간호현장에서의 다문화 간호에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문화 사회에서 미래 간호의 주역이 될 간호대학생을 교육하고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간호교육과 관련한 다문화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개인적 편견이나 편향된 인식의 개선은 문화적 역량을 개발하는 첫 단계로 고려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이주민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예비간호인의 문화적 인식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함으로써 추후 간호인의 긍정적인 문화적 인식 함양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궁극적으로 문화적 역량을 높이기 위한 간호교육 교과과정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인식 수준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여 다문화 간호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인식 수준을 파악하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 인식의 차이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결혼이민자,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고정관념, 감정, 사회적 거리감의 정도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결혼이민자,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고정관념, 감정, 사회적 거리감과 문화적 인식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인식에의 영향요인을 분석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적 인식 수준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단면적인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충남의 C중소도시에서 4년제 2개 대학의 간호학 전공자중 3, 4학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 추출에 의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대상자를 3, 4학년으로 한정 한 것은 저학년에 비해 다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며 대학에서의 2년 이상의 교육경험을 통하여 다문화 관련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본 연구의 다문화 관련 설문에 대하여 적절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표본의 크기는 G*Power analysis (3.10)를 이용하여 대상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 유의수준 .05, 검정력 .85, 효과크기 .15 (medium)로 하여 선형회귀분석에 필요한 대상자 수는 96명이었다. 10%정도 탈락률을 예상하여 105명을 목표로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 결과 설문지를 불충분하게 작성하거나 혹은 설문 문항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작성오류로 판단된 설문지 3부를 제외하고 최종 107명이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3. 연구도구

1) 인구사회학적 특성

간호대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나이, 성별, 종교유무, 학년, 다문화 관련 교육경험유무, 다문화 관련 교과목 수강여부, 외국방문 경험유무, 대학성적을 측정하였다.

2) 문화적 인식

문화적 인식은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한 올바른 문화인식과 더불어 다른 사람과 인종, 지역의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으로(Sue et al., 1998), 본 연구에서는 Rew 등(2003)의 Cultural Awareness Scale (CAS)을 토대로 한국적 보건의료 상황이나 간호대학생의 교육 현장에 맞게 수정한 도구를 이용해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일반적 교육경험, 인지적 인식, 연구이슈, 상호작용으로 인한 안위/행위, 환자간호/임상적 이슈의 5개 영역 중에서 연구 이슈나 환자간호/임상적 이슈 등 국내 상황에 맞지 않은 영역을 제외하고 교육경험, 인지적 인식, 상호작용의 3영역의 21개 문항 가운데 국내 간호교육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영어과 교수 1인의 영어번역 오류에 대한 자문과 간호학 교수 3인의 자문을 통하여 문항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최종 17문항으로 수정하였다. 이 도구는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 인식 수준이 높으며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Rew 등(2003)의 Cultural Awareness Scale (CAS)은 2003년 개발된 후 2008년에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Krainovich-Miller 등(2008)의 연구에서 측정된바 있으며 이들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7$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2$ 였다.

3) 고정관념

고정관념은 편견의 인지적 측면으로서 사람들이 어떤 인종 집단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 특성으로(Briggiam, 1971) 본 연구에서는 Lee (as cited in Hyun, 2011)가 개발한 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한 Hyun (2011)의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로, 결혼이민자, 외국인노동자에 대해 각각 측정하였다. 고정관념은 11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요인분석을 통해 공통성이 .5 이상으로 하여 각 요인과의 관련성이 검증된 문항만을 최종 선택하여 결혼이민자의 경우 '게

으르다', '고집이 세다'는 문장을 제외한 9문항을 사용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는 '게으르다'의 1문항을 제외한 10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상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는 것을 의미한다. Hyun (2011)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계수는 결혼이민자 .69, 외국인 노동자 .74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계수는 결혼이민자 .66, 외국인 노동자 .79였다.

4) 감정

감정이란 편견의 감정적 구성요소로서 편견을 가진 어떤 사람이 어떤 집단의 성원을 생각할 때 경험하는 긍정적, 부정적 느낌 또는 정서로서(Lee, Um, & Jeon, 2003), 본 연구에서는 Lee (as cited in Hyun, 2011)의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하며 12개의 질문으로 구성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상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의미한다. 부정적 문항은 역산하였으며 Hyun (2011)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계수는 결혼이민자 .87, 외국인 노동자 .85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계수는 결혼이민자 .73, 외국인 노동자 .84였다.

5) 사회적 거리감

한 집단의 성원이 다른 집단에 대해서 느끼는 친밀감의 정도(또는 주관적 거리감)로서(Lee et al., 2003), 본 연구에서는 Kim과 Oh (1999)의 도구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결혼, 친척, 이웃, 데이트상대, 세주기에 가족, 직장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요인분석을 통해 공통성이 .5 이하인 '세주기'의 문항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총 6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이며 점수를 역산하여 값이 클수록 사회적 거리감이 큰 것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계수는 결혼이민자 .82, 외국인 노동자 .85였다.

6) 교육 관련 특성

4년제 간호대학생의 다문화와 관련된 주제로 한 워크숍이나 세미나 참석 특강 등의 교육경험이나 대학에 다문화 강좌 개설시 교양 및 전공교과목에서의 수강여부, 국외방문경험의 유무를 조사하였으며 국외경험의 이유는 중복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4.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해당 학교의 간호학과 관련 기관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자료수집에 동의하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자가보고 질문지 조사 과정은 본 연구와 미리 교육된 연구보조원 2명이 연구의 목적, 질문의 내용, 자료의 익명성에 대한 보장 등 직접 질문지에 대해 설명하고 작성하도록 한 후 회수하였다.

5. 윤리적 고려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질문지는 무기명으로 하여 자료조사원이 직접 설문지를 수집하였으며, 작성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라도 철회가 가능함을 설명하였고, 질문지의 내용에도 포함하여 서면동의 후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소정의 선물(학용품)을 제공하였다. 자료수집은 평균 10~15분 정도 소요되었다.

6.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PASW) 18.0 프로그램(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인식수준과 관련 요인간의 이변량 변수 간 관련성과 차이는 t-test, ANOVA,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고, 그룹 간 유의한 차이에 대한 post-hoc test는 Turkey test로 분석하였다. 문화적 인식에의 영향요인은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다문화 관련 교육 경험, 수강여부(없음 0, 있음 1)은 더미(dummy) 변수로 처리하였다. Durbin-Watson 통계량은 2.067로 자기상관의 문제는 없었으며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001~7.718로 기준인 10 이상을 넘지 않아 다중 공선성은 없었고 통계적 유의수준은 p 값 0.05 수준에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간호대학생의 평균연령은 21.6 ± 1.2 세이었으며 연령의 범위는 19-28세이었고 성별로는 대부분이 여성으로 여성이 104명(97.2%), 남성 3명(2.8%)이었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67명(62.6%)이었으며 학년별로 보면 3학년은 60명(56.0%),

4학년은 46명(43.0%)이었다. 다문화 관련 교육경험의 경우 교육경험이 없는 학생이 80명(74.8%)이었으며 다문화 관련 교과목 수강경험이 없는 학생은 95명(88.8%)이었다. 외국방문 경험이 있는 학생은 69명(64.5%)이었고 해외방문의 이유는 단순 여행 44명(63.8%), 어학연수 22명(31.9%), 해외봉사 29명(28.2%) 순이었다. 대학에서의 성적은 보통이다가 54명(50.5%)이었다(Table 1).

2.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문화적 인식수준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문화적 인식 수준은 평균이 3.67 ± 0.43 점이었으며 하위요인으로 교육 경험은 3.27 ± 0.62 점, 인지적 인식 4.00 ± 0.57 점, 상호작용으로 인한 안위/행위 3.67 ± 0.54 점이었다.

대상자가 지각한 고정관념은 결혼이주민에 대해서는 3.14 ± 0.34 점, 외국인노동자에 대해서는 2.93 ± 0.47 점이었고, 결혼이주민에 대한 감정 정도는 3.45 ± 0.54 점, 외국인노동자는 3.11 ± 0.62 점이었다. 사회적 거리감은 결혼이주민은 2.82 ± 0.71 점, 외국인노동자는 2.92 ± 0.77 점이었다(Table 2).

3. 제 요인 변수 간 문화적 인식차이

간호학생들의 일반적 특성과 관련된 변수로 성별, 종교유무, 학년, 다문화 관련 과목 수강여부, 외국방문경험, 대학 성적 등과 관련한 이변량 분석에서 문화적 인식과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연령($F=3.42, p<.05$)과 다문화 관련 교육경험($t=2.53, p<.05$)은 문화적 인식 수준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연령의 사후 검정결과 20세 이하와 24세 이상, 21~23세 그룹과 24세 이상 그룹에 차이가 있었으며 24세 이상인 자의 문화적 인식수준이 높았다(Table 3).

4. 문화적 인식과 고정관념, 감정, 사회적 거리감의 상관관계

문화적 인식과 결혼이주민,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고정관념, 감정은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에 있었고 사회적 거리감과는 부적적인 상관관계에 있었다. 문화적 인식과 결혼이주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고정관념은 각각 $r=.36 (p<.001)$, $r=.30 (p=.002)$ 이었고, 감정은 각각 $r=.29 (p=.003)$, $r=.26 (p=.018)$ 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어 외국인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07)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SD	Range
Age (year)	≤ 20	12 (11.2)	21.6±1.2	19~28
	21~23	88 (82.2)		
	≥ 24	7 (6.5)		
Gender	Male	3 (2.8)		
	Female	104 (97.2)		
Religion	Yes	67 (62.6)		
	No	40 (37.4)		
School Grades	Junior	60 (56.0)		
	Senior	47 (43.9)		
Education experience about a multicultural	Yes	27 (25.2)		
	No	80 (74.8)		
Completion of a multicultural education course	Yes	12 (11.2)		
	No	95 (88.8)		
Overseas experience of visiting	Yes	69 (64.5)		
	No	38 (35.5)		
Causes of overseas visit [†]	Language training	22 (31.9)		
	Trip	44 (63.8)		
	Volunteer service	29 (28.2)		
	Others	8 (7.8)		
School credits	Do well	13 (12.1)		
	Average	54 (50.5)		
	Do poorly	37 (34.6)		

[†] Multiple responses.

Table 2. Level of Cultural Awareness and Stereotyping, Emotions, Social Distance

(N=107)

Variables	Categories	M±SD	Range
Cultural awareness	Educational experience	3.27±0.62	1.60~4.60
	Cognitive awareness	4.00±0.57	2.00~5.00
	Behaviors/comfort with interaction	3.67±0.54	2.33~4.83
	Total Mean	3.67±0.43	2.53~4.71
Stereotyping	Immigrants for marriage	3.14±0.34	2.09~4.00
	Foreign workers	2.93±0.47	1.73~4.55
Emotions	Immigrants for marriage	3.45±0.54	2.33~4.83
	Foreign workers	3.11±0.62	1.50~4.33
Social distance	Immigrants for marriage	2.82±0.71	1.00~5.00
	Foreign workers	2.92±0.77	1.00~5.00

Table 3. Cultural Awareness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07)

Characteristics	Categories	M±SD	t or F	p
Age (year)	≤ 20 ^a	3.53±0.52	3.42 (a < c, b < c)	.037
	21~23 ^b	3.65±0.42		
	≥ 24 ^c	4.05±0.36		
Gender	Male	4.15±0.29	1.62	.109
	Female	3.65±0.43		
Religion	Yes	3.66±0.43	-0.26	.795
	No	3.68±0.44		
School Grades	Junior	3.61±0.46	-1.52	.131
	Senior	3.76±0.40		
Education experience about a multicultural	Yes	3.85±0.41	2.53	.013
	No	3.61±0.43		
Completion of a multicultural education course	Yes	3.83±0.40	1.42	.158
	No	3.65±0.43		
Overseas experience of visiting	Yes	3.72±0.43	1.50	.136
	No	3.58±0.44		
School credits	Do well	3.66±0.43	0.05	.953
	Average	3.70±0.43		
	Do poorly	3.69±0.42		

감정이 긍정적일수록 문화적 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 인식과 사회적 거리감은 결혼이주민 $r=-.31$ ($p=.002$), $r=-.42$ ($p<.001$)로 사회적 거리감이 커지면 문화적 인식수준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5.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인식 영향요인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단계적 선택법에 의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최종모형에서 연구대상자의 문화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beta=-.39$), 결혼이주민

자의 감정($\beta=.24$), 연령($\beta=.19$)이었다($F=12.50$, $p<.001$).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커질수록 문화적 인식수준은 낮아지고, 결혼이주민에 감정이 긍정적일수록, 연령이 많아질수록 문화적 인식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인식에 대한 중회귀모형의 결정계수는 .26으로 전체 설명력은 26%였다(Table 5).

논 의

세계화 추세와 더불어 교육, 복지, 의학 분야 등 사회 다방면에서 다문화와 다문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하여 문화적 민감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Cultural Awareness and Stereotyping, Emotions, Social Distance

(N = 107)

Variable	Categories	Stereotyping	Emotions	Social distance
		r (p)	r (p)	r (p)
Cultural awareness	Immigrants for marriage	.35 (< .001)	.29 (.003)	-.31 (.002)
	Foreign workers	.30 (.002)	.24 (.018)	-.42 (< .001)

Table 5. Multiple Regression with Stepwise Selection for Cultural Awareness

Variable	B	SE	β	t	p
Social distance of foreign workers	-0.22	0.33	-.39	-4.45	< .001
Emotions of immigrants for marriage	0.19	0.07	.24	2.66	.009
Age	0.20	0.09	.19	2.17	.032
F=12.50, Adjusted R ² =.26, p<.001					

성이나 문화적 인식과 역량에 대한 연구 및 실증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의료 및 간호 분야는 이에 대한 실증적인 조사 및 연구가 거의 부재한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인식수준을 파악하고, 이의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분석결과 문화적 인식은 5점 만점에 3.67점으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affrey 등 (2005), Kardong-Edgren 등(2010)의 점수와 유사하였는데 현재의 대학생들이 과거보다 해외경험이나 외국인을 접할 기회가 많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간호대학생들은 외국인 노동자보다는 결혼이주민에 대해 고정관념, 감정이 좀 더 긍정적이었고 사회적 거리감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Park (2011)의 연구와 유사하여 대개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보다 결혼이주민에 대해서는 편견이 적으며 긍정적인 정서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결혼이주민이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정관념, 감정은 문화적 인식과 정적인 상관관계이며 사회적 거리감과는 부적인 상관관계에 있어 외국인거주민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를 가질수록 문화적 인식수준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화적 인식의 영향요인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결혼이주민여성에 대한 감정, 연령이었다. 즉,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클수록 문화적 인식 수준은 낮아졌으며, 결혼이주민에 대한 감정이 긍정적일수록 문화적 인식 수준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는 문화적 인식과 민감성이 교육수준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가지며(Schim, Doorenbos, & Borse, 2006), 다문화 교육과정 이수 후에 문화적 역량이 향상되고(Caffrey et al., 2005), 체험이나 경험적 학습

이 문화적 인식 증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Hyun, 2011; Min & Lee, 2009). 또한, Smit과 Tremethick (2012)는 문화적 역량을 증진시키는 방안으로 국제적인 다학제간의 교과과정 개발이 주요전략이 될 것으로 주장한바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관련 교육경험이나 다문화 관련 교과목의 수강여부보다는 사회적 거리감이나 감정 등 정서적인 요인들이 문화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대학에서 개설된 다문화 관련 교과과정이 개요적인 부분에 그쳐 아직은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다문화에 대한 정서적인 부분들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Min과 Lee (2009)의 연구에서는 체험과 경험적 학습 변인이 문화적 인식과 정적 상관에 있었으나 영향요인은 아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외국인노동자와 결혼이주민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감정은 문화적 인식과 정적상관관계에 있었으며, 특히, 고정관념은 문화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또한, 사회적 거리감은 문화적 인식의 주요한 영향요인이었는데 선행연구에 의하면 다인종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학습 및 접촉의 부족과 사회적 체제감이 주요 요인이라고 한다(Katz & Hass, 1988). 이는 인종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태도가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며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정형화와 편견은 치료의 과정에 개입되어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할 때(Spanierman, Poteat, Wang, & Oh, 2008), 간호학생들에게 인종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긍정적인 인종 인식을 주는 것이 필요하며, 편견과 부정적 고정관념, 부정적 감정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감을 줄이기 위한 다

양한 다문화 체험활동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대학생의 문화적 인식을 분석한 Min과 Lee (2009)의 연구에서는 체험과 경험적 학습비율이 상당히 낮게 나타났는데 본 조사에서도 다문화 관련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은 11.2%에 불과하였으며 해외방문 경험이 64.5%이나 단순여행이 많아 (63.8%), 외국에 대한 문화적 체험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대학교육과정에서의 글로벌 전공체험이나 해외봉사 등 다양한 국제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다문화 관련 교육경험에 따라 문화적 인식수준에 차이가 나는 것을 볼 때 대학생 대상의 다문화 관련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즉, 간호학생들이 타 문화를 이해하고 다른 인종, 다른 지역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한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민이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하여 문화적 역량을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이는 간호의 중재에 의한 환자의 결과를 좋게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미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21세기에 외국인 이주민들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고 보건교육을 수행하여야 할 미래 간호주역들에게 대학 교육에서 다양한 다문화 관련 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많은 간호대학에서 다문화에 대한 교과목이 개설된 경우는 일부에 불과하여, 다문화 관련 주제가 주목받지 못함을 알 수 있으며, 개설된 교과목 또한 개요일적인 내용이 대부분으로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교과목의 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Kim et al., 2010)에 따르면 다문화 가족은 병원 치료 시 중도 포기경험이 10.6%로 나타나, 이들이 의료수혜에 있어 취약계층임을 알 수 있으며, 의료인은 의사소통 장애로 의료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을 갖기 때문에, 의료서비스 수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는 근골격계질환의 문제가 많으며, 작업시 다치거나 본인의 건강문제로 인하여 병의원의 진료를 접하게 되고(Jung et al., 2008), 결혼이주민의 경우는 두통, 생리통, 요통 등의 건강문제를 지니고 있으며 임신과 출산 등의 문제로 병원을 방문하고 있다(Park et al., 2008). 따라서 간호사들은 이제 임상 현장에서 다른 문화권의 외국인을 만나고 이들의 건강문제를 사정하거나 간호제공을 통한 중재에 나서게 될 것이며 이에 대한 문화적 역량을 갖춰 나가야 할 것이며 문화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훈련은 환자의 의료서비스 결과를 증진하게 될 것이다. 본 조사를 통하여 간호학 전공자의 결혼이주민 여성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감정, 사회적 거리감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었고, 외국인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를 가질 때 문화적 인식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문화 교육과정 마련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간호 실무에서 문화적 역량을 증진하는 첫 단계로서 문화적 인식의 개선을 통한 질적인 간호중재 수립의 근거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적 인식수준과 이의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시도되었으며 일부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전체로 확대 해석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분석결과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인식은 5점 만점에 3.67점이었으며 영향요인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결혼이주민여성에 대한 감정, 연령이었다. 즉,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커질수록 문화적 인식수준이 낮아졌으며 결혼이주민에 대한 감정이 긍정적이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문화적 인식은 높아졌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외국인 거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좁히기 위한 노력과 편견을 해소하여 긍정적인 정서를 함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문화사회에서 의료 및 간호 분야도 임상 현장에서 문화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대학교육에서 긍정적인 다문화적 인식 함양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변인을 포함하여 문화적 인식의 영향 요인을 분석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며, 문화적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REFERENCES

- Brigham, J. C. (1971). Ethnic Stereotypes. *Psychological Bulletin*, 76, 15-38.
- Caffrey, R. A., Neander, W., Markle, D., & Stewart, B. (2005). Improving the cultur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Results of integrating cultural content in the curriculum and an international immersion experience.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44(5), 234-240.
- Donnelly, P. L. (2000). Ethics and cross-cultural nursing. *Journal of Transcultural Nursing*, 11(2), 119-126. <http://dx.doi.org/10.1177/104365960001100206>
- Hyun, J. H. (2011). *The factor affecting cultural capacity of those engaged in social welfare facil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am University, Gwangju.

- Jung, H. S., Kim, Y. K., Kim, H. L., Yi, G., Song, Y. E., Kim, J. H., et al. (2008). The health status and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related to gender of migrant worker in Korea.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17*(2), 126-137.
- Kardong-Edgren, S., Cason, C., Brennan, A., Reifsnider, E., Hummel, F., Mancini, M., et al. (2010). Cultural competency of graduation BSN nursing students. *Nursing Education Perspectives, 31*(5), 278-285.
- Katz, I., & Hass, R. G. (1988). Racial ambivalence and value conflict: Correlational and priming studies of dual cognitive struct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893-905.
- Kim, H. S., & Oh, S. S. (1999). The stereotypes, affects and attitudes of college students and citizens toward North Koreans: A comparison with those toward other foreigners. *Psychological Science, 8*(1), 1-22.
- Kim, K., Lee, E., & Kim, J. (2011). Cogni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hospital nurse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3*(6), 3049-3058.
- Kim, M. K. (2010). A qualitative study on university students' multicultural competence: Focusing on the cultural cognition, cultural knowledge and cultural skill. *Journal of Korean Living Science Association, 19*(6), 945-965.
- Kim, S. J., Lee, C. S., Kim, B. Y., Choi, B. S., & Kweon, Y. R. (2010). The effect of multi cultural understanding program on social distance, attitude toward multi cultures and race in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2*(1), 211-225.
- Kim, S. K., Kim, Y. K., Cho, A. J., Kim, H. R., Lee, H. K., Seol, D. H., et al. (2010). *2009 national survey of multicultural families*. Policy Report; 2010-6,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 Koh, A. (2005). *The research of racial bias of children focus on Seoul and Kyoungkido*.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Koh, S. K., & Rhee, Y. S. (2011).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child-care teacher's cultural capability.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3*(4), 2027-2038.
- Krainovich-Miller, B., Yost, J. M., Norman, R. G., Auerhahn, C., Dobal, M., Rosedale, M., et al. (2008). Measuring cultural awareness of nursing students: a first step toward cultural competency. *Journal of Transcultural Nursing, 19*(3), 250-258. <http://dx.doi.org/10.1177/1043659608317451>
- Kuehn, A. F., Chircop, A., Downe-Wambold, B., Sheppard-LeMoine, D., Wittstock, L., Herbert, R., et al. (2011). Evaluating the impact of a North American Nursing Exchange program on student cultural awareness.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Scholarship, 8*(1), 1-15. <http://dx.doi.org/10.2202/1548-923X.1919>
- Lee, G. J., Um, S. J., & Jeon, S. H. (2002). *Current society and psychology*. Seoul: Asian Culture Press.
- Lee, S. H., Kim, J. S., & Han, K. H. (2012). A study on effects that elementary school students' attitudes toward race have on multicultural values. *Education-Culture Research, 18*(1), 133-166.
- Min, S., & Lee, M. (2009). A exploratory study about the cultural competence of university students: Focused on the cultural awareness.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1*(1), 183-206.
- Ministry of Justice. (2011). *Korea Immigration service*. Retrieved June 29, 2012, from http://www.moj.go.kr/HP/TIMM/images/images/2011_immigration_policy_0.pdf
-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2010). *Status of foreign residents*. Retrieved June 29, 2012, from <http://www.mopas.go.kr/gpms/ns/mogaha/user/userlayout/bulletin/userBtView.action?userBtBean.bbsSeq=1021213&userBtBean.ctxCd=1291&userBtBean.ctxType=21010002¤tPage=41>
- Park, H. S., Bae, K. E., Kim, D. H., & Yoon, A. R. (2008). Health status of married immigrant women in Busan. *Journal of Korean Academy Fundamental Nursing, 15*(1), 80-88.
- Park, S. H. (2011). *Factors affecting social work undergraduate student's attitude on social distance toward multicultural group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am University, Gwangju.
- Rew, L., Becker, H., Cookston, J., Khosropours, S., & Martinez, S. (2003). Measuring cultural awarenes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42*(6), 249-257.
- Schim, S. M., Doorenbos, A. Z., & Borse, N. N. (2006). Cultural competence among hospice nurses. *Journal of Hospice & Palliative Nursing, 8*(5), 302-307.
- Seo, U. S. (2010). An comparative analysis of social awareness of multicultural society in, Korea, China, Vietnam. *Multicultures Society Research, 3*(1), 31-64.
- Smit, E. M., & Tremethick, M. J. (2012). Development of an international interdisciplinary course: A strategy to promote cultural competence and collaboration. *Nurse Education in Practice, 7*, 1-5. <http://dx.doi.org/10.1016/j.nepr.2012.08.006>
- Spanierman, L. B., Poteat, V. P., Wang, Y. F., & Oh, E. (2008). Psychosocial costs of racism to white counselors: Predicting various dimensions of multicultural counseling competen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5*(1), 75-88. <http://dx.doi.org/10.1037/0022-0167.55.1.75>
- Sue, D. W., Arredondo, P., & McDavis, R. J. (1998). *Multicultural counseling competence: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development*. Thousand Oaks, CA: Sage.
- United Nation. (2009). *Trends in international migration stock: The 2008 Revision*. Retrieved September 10, 2012, from http://www.un.org/esa/population/migration/UN_Mig_Stock_2008.pdf